



오동찬 의료부장이 국립소록도병원 정문 옆 벽화에서 소록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한센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벽화를 바라보며 한센인에 대한 우리 사회 편견이 하루 속히 사라지기를 기원했다.

제2회 성천상 수상 나주 출신 오동찬 소록도병원 의료부장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에는 사슴을 닮은 작은 섬이 있다. 소록도(小鹿島)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지만 주민들이 겪은 삶의 굴곡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소록도에는 현재 573명의 한센인이 모여 살고 있다. 마을 어귀 검사실에는 과거 한센인이 생체실험을 당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한센인은 세 번 죽는다고 한다. 한센병에 걸렸을 때, 해부관 명목으로 죽어서 사지가 갈라리 찢길 때, 그리고 원치 않는 화장을 당할 때. 국가와 사회, 가족에게서까지 버림받았던 이들이 모여들었던 소록도. 이곳에서 지난 20년간 한센인과 함께 한 국립소록도병원 오동찬(46) 의료부장은 지난 8월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선정한 제2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우리 사회 가장 어두운 곳에서 절망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치료하며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수여하는 것이 성천상이다. 그는 최종 후보 3인으로 선정돼 실사를 받을 때까지 한사코 수상을 거절했다. 심지어 수상 소감을 묻는 수많은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다. 소록도병원으로 직접 찾아가서야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국립소록도병원이 문을 연지 올해로 98년째입니다.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200여명은 한센인을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되고 언론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저보다 더 오랫동안 한센인을 돕고 함께 한 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천상을 받게 돼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한센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어떤 의사가 한 병원에서 20년간 근무했다고 특별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의료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센인과 오랫동안 근무했다는 사실 때문에 성천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들을 여전히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같아 안

타갑습니다.”

‘소록도 슈바이처’로 불리는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단순한 의사 선생님을 넘어 ‘한센인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신학과 철학에 두각을 나타내며 30살에 대학 교수직을 맡게 됐으나 이를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난 알베르트 슈바이처처럼 오부장 역시 평범한 동료 치과의사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다.

그는 나주에서 태어나 충장중학교, 진



오동찬 의료부장이 한센인 주민에게 선물을 받은 글씨를 보여 환하게 웃고 있다.

흥고등학교를 거쳐 지난 1995년 조선대 치과대학을 졸업했다. 서울에서 1년 수련의 과정을 마친 뒤에도 공중보건의로 망설임 없이 소록도를 택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한센인 아픔에 남다르게 공감했던 그는 주면 만류가 있었지만 번복하지 않았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된다’며 완고하게 반대하던 어머니도 그를 막지 못했다. 그렇게 1년만 다녀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소록도로 떠났다. 한센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에 누구나 잠깐 스쳐 지나갔던 곳이 바로 소록도였다. 오 부장은 그곳에서 한센인의 눈물과 아픔을 보듬으며 20년을 보냈다.

1년 만에 돌아왔다면 아들은 어머니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한센병에 대한 두려움과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소록도행을 반대했던 어머니는 임종 직전 ‘환자를

어머니처럼 돌보거라’는 유언을 남겼다. 강산이 두 번 바뀔 동안 한센인과 지낸 그는 한센병이 결핵과 비슷하지만 훨씬 ‘악한 병’이라고 강조했다.

“결핵은 최소한 1년은 약을 복용해야 병이 사라지지만 한센병은 주사를 맞으면 금방 치료됩니다. 치료제도 3개월만 먹으면 될 정도로 무섭지 않은 병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보건위생여건이 좋은 나라에서 결핵예방주사(BCG)를 맞으면 한센병에 99%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록도 병원이 생긴 이래 전염된 직원은 한 명도 없

한센인과 20년 동거동락

의사에서 이젠 가족으로

한센병은 결핵보다 치료 쉬워

편견 벗고 따뜻한 시선 필요

성천상 수상 상금 1억원

한센인들 위해 쾌척

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전해지던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한센병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차별했던 것입니다.”

오 부장은 지난 6월 순천에 있던 집을 팔고 가족과 함께 소록도로 들어왔다. 소록도 주민으로 맞는 첫 번째 명절 계획을 묻는 기자에게 그는 아심찬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한센인을 위해 희생했던 가족에게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성천상 상금이 1억원이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선물은 선물에 웃을 생각에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그동안 변변한 정장도 없었던 부인에게 옷을 선물하고, 20년 다된 텔레비전과 냉장고도 바꾸려고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반대하더군요. ‘한센인 덕분에 받은 상금’은 한센인을 위해 써야 한다고 말하는 두 딸을 보며 흔쾌히 기뻐했습니다.”

그는 치과의사이지만,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두 딸의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는 지극히 평범한 가장이었다. 자신은 누구보다 부자라고 말하지만 가진 것을 한센인과 나누느라 십 년도 넘는 안경테와 바닥이 다 닳은 신발을 바꾸지 못했다. 그렇지만 자신보다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두 딸을 보며 행복하다고 말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뒀지만 소록도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소록도의 명절을 묻는 기자에게는 숙연한 대답이 돌아왔다.

“소록도에 다리가 놓이고 아름다운 산책로가 생기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소록도 주민은 여전히 고립돼 있습니다. 명절에도 한센인 부모를 찾아오는 자녀는 많지 않습니다. 몇 년 전 한 주민이 고향에 사는 자녀를 만나려고 소록도를 나갔다가 고향 집 주변만 서성거리다가 끝내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록도 주민들은 가족이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병도 완치됐지만 사회적 편견 때문에 속 숙인 채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센인 주민은 소록도 밖으로 나가는 것도 녹록지 않았다. 현재 한국은 한센병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과거 환자들은 모두 완치됐고, 치료가 늦어져서 손이 일그러지는 등 후유증이 있는 이들도 남아있을 뿐이다. 하지만 한센인에 대한 편견은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한센인은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보다는 사회적 차별과 냉대에 더 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름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씁니다. 청각 장애인은 귀가 좋지 않아 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눈이 나빠 안경을 쓰는 저와 청각 장애인은 같은 사람입니다. 한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센병을 겪어 몸이 조금 불편하지만 저와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분들입니다. 우리 사회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조금씩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고흥 소록도 글·사진=양세열기자 hot@

광주 북구 지방재정 균형집행 중간평가 ‘대상’



광주 북구(청장 송광운)는 최근 안전행정부가 전국 24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중간평가 결과에서 69개 자치구중 대상을 수상했다. <북구청 제공>

광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외계층 사랑나눔행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강정숙)은 최근 지역 관내 소외계층 및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등을 대상으로 민족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공감 있는 마음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심평원 제공>

광주 기아차공장, 복지시설에 전통시장상품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공장장 김중웅)은 지난 3일 광주인연맹기학교,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등 광주·전남 사회복지시설에 ‘추석맞이 전통시장상품권 전달 행사’를 가졌다. <기아자동차광주공장 제공>

금호터미널 쌍촌복지관서 추석맞이 봉사활동



금호터미널(사장 기욱) 임직원들이 4일 광주시 서구 쌍촌사회복지관에서 송편을 빚고 과일 등이 담긴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금호터미널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하축

▲김동영(전 광주일보 논설실장)·박미경씨 장남 여중군 허남연·권영미씨 삼녀 주연양=14일(일) 오후 1시 광주 광산구 아름다운컨벤션 2층 베르사제 홀.

종친회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이화회(회장 이승봉) 월례회의=12일(금) 오후 6시30분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청년이화월례회의(회장 이철환)=16일(화) 오후 7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알림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

527-3400, 3403.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열린마음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보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

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로지원, 장례지도사무로지원 062-369-4009.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모집

▲동구자원봉사센터 전문봉사단육성 교육 교육생=동화구연, 종이접기, 핸드마사지 등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누구나 참여가능 분야별 선착순 15명 9월 15일까지 접수 문의 062-228-1365.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

구조협회 광주광역시지부 특전사=예비역 및 회원 수시 모집 062-225-6500, 011-610-5575.

▲무등예술종합평생교육원 수강생=유아교사를 위한 반주법, 정서를 위한 악기 사용법·뮤지컬 템덴스·바른몸 운동지도사 양성과정. 노동부 지원·국비지원(직장인·일반인·창업예정인, 자격증반 수시 접수) 062-269-6669, 010-3606-0230.

▲각각문화의집 프로그램 회원=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30분) 등 수시 회원 모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9337.

▲디자인 슝 제작 판매과정 수강생=천연바누, 천연화장품 강좌, 국내최초 디자인 슝 국비지원 학원, 국제공인아로마테라피스트가 직접 강의. 재료비·교재비 무료. 한마루학원 070-7801-8004(www.ihan+maru.co.kr)

▲(사)‘장애인먼저’ 실천광주운동본부 회원=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

나 신청가능, 각종 장애인관련 행사 보조,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 등. 062-511-0030, 514-2929.

▲광주·전남불교신도회원=불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분자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분자(55세 이하)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부음

▲송승남씨 별세 박창수(전 IIG화재)·동수(박중수외과)·미애·미영씨 모친상=발인 6일(토)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삼가 故人的 冥福을 빕니다	
101호 故조병영 님(여/64세) 女/婿 : 이향숙/이수왕, 이인숙/김경준 이영숙/오동환, 이금란/최동익 • 발 인 : 9월 5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5	102호 故김영태 님(남/71세) 女/子婦 : 김인준, 김용준/정명숙 女/婿 : 김미래/노배균 未亡人 : 박용례 • 발 인 : 9월 5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6
201호 故박점덕 님(여/84세) 女/子婦 : 송원근/오연남, 송선근/미선희 女/婿 : 송정숙/강정호, 송명숙/명경호, 송효숙/강영진 • 발 인 : 9월 5일 • 장 지 : 담양천주교묘지 • 연락처 : 227-4381	301호 故김유환 님(여/58세) 女/子婦 : 김재민/김유경, 김재민 女/婿 : 김덕환 • 발 인 : 9월 5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2
401호 故정난순 님(여/103세) 女/子婦 : 김영자, 박용림/정장남, 박용림/김안숙 女/婿 : 박양순/이근오, 박영희/고종주, 박명숙/정인영 • 발 인 : 9월 5일 • 장 지 : 고향 광명면 • 연락처 : 227-4383	
孝 金 浩 張 禮 式 堂 http://www.mykumho.com	
문 의 (062)227-4000	